

병(病) 상(相) 수(手) 첩(첩)

우리의 거울에 비친
두 개의 별을 겨냥한 사냥

I

아무도 없었다.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고도 없이 우리의 영역을 습격한 몇개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도피에 능통했고 의식의 소멸에도 역반응을 나타냈다. 우리는 아무런 지각도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하늘이 무너지고 있음을 몰랐다. 자신의 육체에서 의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음.

자신들의 영역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II

우리는 몇 세기 전부터 기형인류의 난립에 시달렸고 붉은 반점이 돌히는 이름모를 병마에 우리의 육신을 말렸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저버림에 고통을 받았으며 스스로 병자임을 몰랐다. 우리의 살갓에 죽은 시대의 부스러기가 아직도 묻어 있었다. 자꾸만 우리의 의식을 쪼먹고 그 자리에 찍어 버린 말뚝을 박아대는 두개의 지배군이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잊었으며 우리의 앞에 허물어진 벽의 잔재가 가로놓여 있음에

진주 최 신경외과 이 중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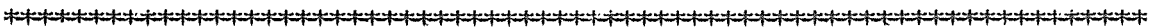
당황하였으며 우리도 모르게 웃기에 미숙해졌다. 웃어대는 이는 많았으나 웃음이 보이지 않았고 아픈 상처를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같이 아픔이 없는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 우리의 땅에, 우리의 하늘 밑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

III

노획된 생각의 뿌리에 흑이 달리는 세대에 우리는 제각기 앓는 방법을 배웠다. 병을 앓는 방법은 쉬운 것이 아니다. 병을 잘 앓는 사람은 이미 병자가 아니며 병을 앓는 데 서투른 자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병을 겁내지 말자. 우리의 병폐는 병을 두려워 하는것 당당하게 병을 맞아들이자 우리의 하늘이 무너졌음을 깨닫자. 우리의 몸에 상처가 빌붙어 있음과 의식의 부재(不在). 허물어진 벽의 잔재가 우리를 불면으로 시들게 함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IV

화살과 활을 다듬고
우리 세대의 병을 향하여 가자.
눈을 뜨면서 사냥을 떠나자. 사냥을 떠나자.



멋있는 복수

유 길 환

어느 중년부인이 모 회사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런데, 승용차를 출고받은 날로부터 차에 이상이 생겨 성능이 떨어지자, 다른 차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회사에서는 그 말을 몇번이나 묵살해 버렸다.

화가 난 그 부인은 궁리끝에 “나는 모 회사의 차를 구입한 것을 후회합니다”라는 큰 스티커

를 차체 뒤에 붙이고 다녔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모 회사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그 부인의 차를 교환해 주기로 결정하고 그 부인을 불렀다. 그리하여 그 부인은 출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을 타고 다니다 새 차로 교환 받았다는 이야기다.
나는 거기서 그 대기업을 상대로 깨끗하게 대항한 것을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도 그 중년부인 처럼 정당한 권리를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무서운 지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